

광주·전남 주택건설협회, 취약계층에 후원금·마스크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지난 20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후원금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날 광주·전남도회는 광주 북구청과 남구청, 동구청, 서구청, 광산구청 등 광주 5개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코

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으로 마스크 3만장씩 15만장도 전달했다.

정원주 회장은 "올 연말 사회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곳에 작지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최근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만큼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가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법무보호복지공단, 협의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가 최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2021 광주전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최정학 법무보호위원 협의회장이 취임했다.

최 협의회장은 "그간 광주·전남지역을 위해 보호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한 것이 무척 보람된 일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의회와 원활한 운영, 그리고 법무보호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는 원활한 법무보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을 준 법무보호위원을 격려하고 포상했다. 장관상 1명을 포함해 40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개발공사, 상생결제 우수기관 '중기부 표창'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생결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최초 도입 및 지방공기업중 상생결제 최고 실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활용하여 결제대금을 낮은 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김철신 사장은 "상생결제시스템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판단해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2차 이하 협력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동신대 동아리 '일탈사냥', 학대피해아동에 놀이꾸러미



동신대학교 사회복식학과 동아리 '일탈사냥' (회장 노경선)이 최근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에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놀이꾸러미 '소중한 너를 위한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행복꾸러미는 카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 슬라이드 제작 세트를 비롯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동신대 사회복식학과 제공>

인사

◆전남도교육청

◇4급 승진

▲정책기획과 교육협력관 한종덕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이정도 ▲목포대학교 파견 김현철

◇4급 전보

▲나주공공도서관 직무대리 김도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교주진단장 김종훈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윤명식 ▲예산과장 진현주 ▲행정과장 변운섭 ▲재정과장 이선국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한철 ▲총무부장 노권열 ▲학생교육문화회관 기획운영부장 오준현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선승현

◇5급 승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송선화 ▲광양평생교육관 김영애 ▲여수여명학교 김현아 ▲여천고 노용근 ▲순천공고 김근철 ▲전남조리과학고 임은숙 ▲함평학다리고 김선수 ▲완도고 이소향 ▲완도수산고 임성규 ▲순천대학교 파견 허형숙

◇5급 교육지원청 과장 전보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미숙 ▲나주교육지원청 "조경진 ▲광양교육지원청 "김유명 ▲보성교육지원청 "김민호 ▲장흥교육지원청 "윤양일 ▲영암교육지원청 "이유영 ▲무안교육지원청 "이승호

◇5급 본청팀장 전보

▲감사관 장동준 ▲정책기획과 김전호 ▲안전복지과 오병환 ▲노사정책과 김경란 ▲유초등교육과 문세경 ▲체육건강예술과 김성주 ▲총무과 박복병 ▲김화정 ▲예산과 황수진 ▲재정과 김중만 ▲시설과 이계영

◇5급 산하기관 전보

▲교육연수원 임재석 ▲김의근 ▲목포공공도서관 현규남 ▲장혜란 ▲안천체육학습장 문희산 ▲장성공공도서관 황인수 ▲유아교육진흥원 이재훈 ▲목포제일여고 최병문 ▲순천여고 이완숙 ▲매성고 이순환 ▲전남미용고 한점기 ▲강진고 문진태 ▲영광공공도서관장 조희희 ▲영광고 이승학 ▲진도실고 김미정 ▲교원대 파견 이영근 ▲김난의 ▲나흥현 ▲안정임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December 22nd.

EBS1

Table with 2 columns: Time and Program Name. Lists EBS1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한국의 요리비결', and '세계테마기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2일 (음 11월 19일 甲辰)
36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48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어나르다. 60년생 지금 열심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72년생 표기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말이 없다. 84년생 피땀 흘려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헛수고이다. 96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13, 87
37년생 한 번 정한 약속은 꼭 지켜라. 49년생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목적했던 바를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다. 61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85년생 융통성이 절실한 요구 된다. 97년생 변수로운 해서 힘들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6, 53
38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50년생 말은 아끼고 무게를 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실용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74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86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요소들이니 잘 다뤄야 한다. 98년생 작정하고 담배야 겨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41, 88
39년생 타산지적으로서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51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63년생 요건은 있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75년생 승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87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99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28, 86
40년생 구태의연함을 정리하여야 한다. 52년생 실행에 착수하는 것이 무방하다. 64년생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 이러하면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88년생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00년생 조심으로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31, 81
41년생 중대한 일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53년생 생고뇌에 찬 하루가 될 것이다. 65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77년생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89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01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 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91
42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하리라. 54년생 완화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 66년생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78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90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02년생 마무리가 완벽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3, 80
43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5년생 승평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67년생 노파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9년생 어찌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91년생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03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38, 96
32년생 내버려둬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44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56년생 폐단을 제거한 후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68년생 원만하게 처리하라. 80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아주어야 한다. 92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 02, 75
33년생 길경의 물결이 남싹대고 있으니 곧 좋은 일이 있으리라. 45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57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요연해진다. 69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개로 이끌어갈 것이니라. 81년생 앞에서도 방치한다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93년생 양 쪽 면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50
34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46년생 가급적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 58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사가 전개 되리라. 70년생 여태까지 살아 온 바를 평가 받게 되리라. 82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94년생 제 때를 만났으니 힘껏 내달려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08, 76
35년생 집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47년생 돈을 보고 도리깨짐을 즐기고 있는 이치이다. 59년생 근혹스러운 부활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71년생 끝까지 다치지 말고 주체적이어야만 한다. 83년생 목격의식이 분명해져 차질이 없는 법이다. 95년생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63